

꿀벌이 주는 최고의 선물

超藥 - 초약 프로폴리스

-지난호에 이어서-

◆ 현대의학이 실현한 항암요법

1. 약 91만 명이 투병 중

일본 후생성이 종합한 '1993년 환자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암환자 수는 90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다음해인 1994년, 암에 의한 사망자수는 24만 3천 명 남짓으로 되어있다. 이 수치는 이 해에 사망한 사람의 약 28%를 차지하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자의 내역을 보면, 최근에는 남녀 모두 위암에 의한 사망자가 줄어드는 경향이다. 여성이 자궁암에 의한 사망 수도 적어진 것을 보면 암에 의한 사망자 수 자체가 적어지는 듯 싶으나, 남성에 대해서는 폐암, 간암, 결장암 등의 사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암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암에 걸리는 사람의 수를 연간 약 5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암이 오늘날에는 꼭 불치의 병은 아니지만, 여전히 심각한 병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만약 자신이 암을 선고받았다면……, 또는 혹시 가족이 암이라고 진단되었다면…….

이것은 환자 본인의, 그리고 그 가족의 운명마저 한번에 변화시키는 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진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위의 모든 사람을 끌어넣는 길고도 괴로운 암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2. 외과적 요법

현대의학이 현재까지 획득한 암과의 투병방법에서 가장 치료 확률이 높은 것은 암의 병소(병원균이 있는 곳)를 모두 적출해 버리는 외과적 요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변으로의 전이상태와 병소가 수술에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이 방법에서는 원래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장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제해 버림으로써,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극히 초기의 위암, 대장 '폴립' 등을 내시경과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제거해 버리는 내시경 수술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환자의 고통이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수술이 취해지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 불과하다. 수술 후에 합병증을 발생하거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훗날 통상

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회복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지나친 표현이 되겠지만, 유방암 수술로 유방을 잃어도, 인두암 수술로 성대를 잃어도, 그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똥숨이 제일'이라는 것이 이 방법이다.

이런 외과적인 요법을 쓸 수 없을 경우에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면역요법과 온열요법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유전자 요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3. 항암제

항암제를 사용한 화학요법은 백혈병, 악성 임파종, 고환, 난소종양, 근육종 등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치료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항암제만으로 암과 싸울 수 있을 만큼 높은 효과를 얻기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항암제는 증식하고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혈액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증식을 계속하는 골수의 기능까지 억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빈혈과 백혈구의 감소, 혈소판의 감소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현재의 화학요법에는 이러한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작용 '메카니즘'이 다른 여러 종의 항암제를 배합?투여하여, 높은 효과를 추구하는 다제병용 요법이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 외에,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항암제를 도달시키는 '미사일' 요법에 대표되는 DDS(약물수송계) 개발에 의해서 전신적인 부작용을 약하게 함과 동시에, 약제를 암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4. 방사선 요법

'코발트' 60과 X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을 암의 병소에 쬐는 방사선 요법은 암 병소가 굳어지고, 수술로써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현재는 외과적 요법과 화학요법, 또는 온열요법 등이 병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 성과도 향상되고 있다.

단, 방사선의 영향이 암 주변의 정상 세포에까지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역시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 특히 방사선에 의해 백혈구가 파괴되고,



신체내의 면역기능과 항원항체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 암세포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버리는 본말전도(本末顛倒)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5. 면역요법

최근 주목을 모으게 된 면역 요법은 원래 사람 몸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료하려는 것이다. 면역력을 증강, 조정, 회복시키는 물질은 BRM(생물학적 응답조정물질)로 불리며, 이전에는 '원숭이의 결상(버섯의 한가지)'에서 추출된 PS-K 등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람 몸 안에 항암 면역을 하는 물질인 '인터페론'과 '인터로킹?2', '종양괴사인자(TNF)', 인터페론 2세라고 하는 'SOD(스퍼·오키사이드·디스모타제)' 등을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방약, 기능성 식품 등을 받아들여, 면역요법을 시도하려는 의사, 병원도 있다.

◆ 총력을 모은 복합적 치료를

외과적 요법,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의 부작용을 적게하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하며, 치료가 어려운 소위 난치 암에 대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 같은 요법을 배합한 복합적 요법을 쓰게 되었다. 진행 암인 경우, 수술에 의해서 주요한 병소를 적게한 수,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을 하며, 간암과 췌장암인 경우, 개복 수술 중에 방사선을 쬐는 방법이 종전에는 바랄 수 없었던 효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강한 항암제의 투여와 방사선을 전신에 쬐는 데서 오는 부작용으로써 나타나는 골수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 자신의 골수를 동결보존하고, 치료 후에 골수세포를 돌려주는 자가 골수 이식방법이 실용화 됨으로써, 끝까지 항암제의 투여량을 늘리는 시도도 하게 되었다. 암과 같은 목숨에 직접 관계되는 병, 그리고 완전히 치료법이 발견되지 못하여, 극복되었다고 잘라 말할 수 없는 병에 대해서는 유효한 작용을 하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암에 걸린 환자 본인에게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밀도가 높은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힘을 유지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치료를 받는 본인은 암에 의하여 몸 기능에 변화가 생기는 데다, 여러 가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의한 식욕저하와 체중감소를 방지하고, 체력과 몸의 '컨디션'을 유지함은 물론, 환자 본인이 '절대로 병을 고치겠다', '고치고 만다'는 강한 의지

를 끈질기게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한 복합적 요법을 하는 한편, 암 치료 후의 삶의 질을 될 수 있는 한, 높이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 요법도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내시경 수술의 적용 범위 확대와 직장암 수술에서의 성 기능 보전, 인공방광 유지술과 같은 기능 보존술, 유방암 등의 미용상?심리적인 영향도 고려한 축소수술과 수술 후의 적응 과정 등의 방법이 많이 실행되는 것은 그 일련의 예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암 치료 최전선에서는 몸 속의 암세포를 외부로부터의 조작-수술, 항암제 투여, 방사선 등-만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저항력을 증강하여, 체내에 암과 싸우는 힘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암과의 싸움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백업해 주는 강한 지원자가 프로폴리스인 것이다.

◆ 암에 이기는 프로폴리스 효과의 입증

프로폴리스가 어떻게 암과의 싸움에 크게 공헌해 주는가. 그 '메카니즘'을 찾는 연구도 물론 널리 행해지고 있다.

프로폴리스 성분에는 몇 가지의 항암작용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구레로단'계 '지테르펜'이라는 물질이며, 사람의 간암 세포에 이 물질을 넣어서 배양하면, 약 일곱시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2일 후에는 암세포가 사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물질의 특징은 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 분열하는 과정일 때 만을 골라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아시다시피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서 활발히 분열?증식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이 물질의 영향은 암세포만을 선택해서 커다란 '데미지'를 입힌다. 이 '구레로단'계 '지테르펜'은 프로폴리스에 풍부히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또한 항암 활성도 강력하므로, 프로폴리스의 항암작용을 하는 중심적인 물질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후라보노이드'의 일종인 '게루세친'도 프로폴리스에 함유된 항암활성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이 발생하는 단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체내에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작용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며, 활성산소가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해치는 것이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후라보노이드'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작용에 의하여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과잉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프로폴리스에 함유되어 있는 '게루세친'에도 암의 발생을

방지하며, 혹은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일련의 연구는 일본의 프로폴리스 '뽕'의 과열과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프로폴리스의 항암작용을 추구하자는 커다란 물결이 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먼저 말한 대로이다. 여기에 비해서 해외에서는 '프로폴리스의 약효로 암 증상이 개선되고, 체내의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하는 보고가 권위 있는 학회 등을 무대로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프로폴리스를 먹으며 암을 극복한 환자가 눈앞에 있다해도, 그것이 프로폴리스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좀처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작용의 '메카니즘'이 해명되어 있지 않다"는 한마디 말로 의사들은 그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불치의 병'이라 진단 받은 환자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보자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 이론보다 증거가 보이는 프로폴리스의 항암효과

1. 프로폴리스의 광장에 보내 온 수많은 체험

프로폴리스의 항암작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데이터'를 여기서 충분히 소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프로폴리스의 항암작용을 '이론보다 증거'로 보이는 체험담은 얼마든지 있다. 말하자면 "프로폴리스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제가 투여되어도, 백혈구의 감소와 식욕감퇴, 구역질 등의 부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수술 전 대량의 프로폴리스를 먹고 있었는데, 막상 개복수술을 받았을 때는 암세포가 굳어져 이미 죽어있었다.", "수술 후에 전이가 걱정되었지만, 프로폴리스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전혀 전이나 재발이 없었다.", "간장의 절반 이상을 잘라냈는데, 프로폴리스를 복용했더니, 보통의 2배 이상 속도로 간장이 예전의 크기로 되었다." 등등.....

예를 들면 '프로폴리스의 광장'의 한 34세 남성회원은 암이 진행되는 심각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가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면서, 대단히 길은 화학요법을 받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부작용도 없고, 식욕도 왕성했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걸로 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다른 40대 여성회원은 종아리에 있던 작은 점이 변형되어 있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는 피부암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로 입원하고, 3일 후에는 하반신의 임파선을 모두 제거하고, 피부이식 등을 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미 암은 말기에 들어 있었으며, 완치가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폐와 자궁에 전이한 암도 상당히 커져 있었다. 그 사람은 수술 전부터 꽤 많은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했으며, 수술 후에는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복합적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식한 피부의 융합이 매우 좋고, 피부의 회복도 빨랐고, 더욱이 다행인 것은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 가벼워졌다고 한다. 임파선을 제거했는데도 다리의 부기가 없고, 식욕감퇴가 없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었다. 수개월 후에는 폐와 자궁의 암 병소가 모두 자취를 감추고, 검사에서도 종양의 존재를 나타내는 '마카'가 검출되지 않게 되었다. 현재도 화학치료를 받는 동시에 프로폴리스를 계속 먹고 있지만, 환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색이 좋고, 원기왕성한 매일을 보내고 있다. 이 사람이 전혀 항암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주위 사람들도 놀라고 있다고 한다.

내가 아는 한, 최근 많아지는 폐암에 대한 효과는 대단히 극적인데, 남은 수명을 3개월~반년으로 선고 받은 사람의 약 88%가 프로폴리스를 복용한 후로부터 수명 연장에 성공했으며, 프로폴리스를 2~3년 이상 먹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 더욱이 인두암, 췌장암과 같은 난치성의 암이라 불리는 것도, 초기 단계에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한 대다수의 사람은 병세가 회복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난치병인 암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절대라고는 할 수 없다. 프로폴리스는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은 특히 통증이 심한 암으로 무서워하고 있으며, 말기에 가서는 대부분의 경우 진통을 위해서 고농도의 '몰핀'을 투여하여, 거의 잠자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췌장암 환자로서 프로폴리스를 먹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가 전혀 '몰핀'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 의사가 진단한 수명의 몇 배를 연장하고 있다. 혹은 유감스럽게도 말기 환자였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도 전혀 아픔에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한다. 프로폴리스가 암과 싸우는 매일 매일의 생활의 질을 굉장한 것으로 만들어 주어 고마웠다는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다.

-다음호에 계속-